

2008. 9. 1(월)
제175회 임시회(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성과상여금의 평가방법 개선 촉구



속 초 시 의 회
(김진기 의원)

성과상여금의 평가방법 개선 촉구

지난달 속초시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평가방법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 촉구를 통하여 사기가 떨어지고 말할 수 없는 마음에 상처를 입은 속초시 일부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급과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공무원 보수와는 달리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 지역발전 등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무원 개개인의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평가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방법은 대다수 공무원이 만족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속초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 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20여일 동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가지 방법 중의 하나인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선정되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 “근무평정(60%), 성과가점(10%), 다면평가(30%)”의 방법으로 평점을 매긴 후 성과상여금을 결정하여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총 평가대상 604명의 우리시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공평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희망과는 달리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이번 평가에서 만족해하지 못하는 등급결정 결과가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만족하지 못한 등급결정 결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결과 최고등급인 S등급의 경우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50%이상이 선정된 반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대민부서의 직원 중에는 최고 등급에 선정된 직원이 거의 없으며 하는 현실에 대다수의 직원들은 직원간 상호 불신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것에 대하여 놀라움과 섭섭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비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대민부서의 직원들이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방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며, 속초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점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성과상여금 평가에 대한 공정성 등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으로 인한 불만을 느끼게 한 속초시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조무사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빛은 한곳에 내리 쬐이지 않고 고루고루 비춘다는 뜻의 의미로 리더의 역할이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는 사랑과 관심으로 상호 신뢰하는 풍토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야말로 정이 넘치고 인간미가 흐르는 상경하애(上敬下愛)의 직장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평가 시엔 모든 직원들에게 환영받는 결과가 이루어지길 본 의원은 기대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지급할 성과상여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으로 불협화음이 없는 검토 등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다면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불만이 해소될 것이며 개선과정의 진행 상황 또한 지켜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성과상여금 지급평가에 대한 부분과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만족하지 못한 등급결정에 불만과 놀라움을 느낀 여러 공무원들에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지역경기 침체로 인하여 모든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면서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 위치에서 열심을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